다산포럼

남영신

그를 보내고 우리를 돌아본다

2009년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나는 슬픔 속에서 역설적인 행복을 느끼며 그의 애도 기간을 보냈고 기막힌 영결식을 지켜봤다. 그가 그렇게 죽어야 했던 것이 기막혔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슬펐고, 우리 사회의 지나친 옹졸함이 기막혔고, 우리 사회에 가득한 증오가 슬펐다. 그런 기막힘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좋아할 만한 한 지도자가 우리 곁에 있었던 것에 행복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행복을 느꼈고,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기성세대는 물질과 명예를 좇아서 이 사회를 건설했지만, 젊은 세대는 자유와 민주라는 의로운 가치를 좇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행복을 느꼈다.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국민은 행복하다.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안겨 주었던 첫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의 팔매질까지 견디며 묵묵히 의롭고 외로운 길을 걸었던 그는 이제 우리 곁에 없다. 이제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고 각자의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하려고 했던 의로운 일을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으면 그의 죽음은 한낱 감상적인 사건으로 치부되고, 우리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욱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를 되새겨 보자. 음행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가 말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와서 먼저 저 여인을 치시오." 군중은 무지한 돌팔매로 자신을 죽이고, 지도자는 탐욕의 돌팔매로 의인을 죽인다. 우리 사회에서는 20% 의로운 자가 80% 의로운 자를 돌팔매로 죽이는 짓이 되풀이되었다. 자신의 80% 불의는 숨기고, 80% 의로운 자의 20% 불의를 들춤으로써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라고 매도하는 일이 벌어진다.

자기보다 의로운 자에게 돌을 던지는 자는 악한 자다. 의인은 그 의로움으로 기억되고, 악인은 그 사악함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성경의 다음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의로운 자를 의롭게 여길 만한 눈을 가진 국민, 의로운 자를 지도자로 섬길 마음을 갖춘 국민만이 의로운 사회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남을 증오하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불의한 짓이고 악한 짓이다. 정치, 사회, 국가의 발전과 퇴보는 지도자들의 말에서 시작한다. 증오하는 말은 더 큰 증오를 낳고, 정죄하는 말은 자기의 오만을 쌓는다. 증오와 오만이 가득한 지도자가 지지를 받는 사회는 분열과 적개심으로 편할 날이 없게 된다.

우리가 진정 우리 사회를 의롭고 평안하게 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입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행복은 봄날의 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우리 입에서 증오와 적대감이 묻은 말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 입에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각자의 입을 다스리자. 우리가 강한 외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번영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끼리의 부조화를 융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말을 삼가는 일이다.

애도 기간에 쏟아진 극우 세력의 말들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 증오와 분열 양상을 읽을 수 있었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증오심과 적개심을 마구 배설하고 이를 언론과 정치가 확대 재생산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심한 분열과 증오로 치닫게 될 것이다. 누가 있어 스스로 의로운 정치를 하겠다면 바로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더러운 배설 행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극단주의자들의 배설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을 도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쯤에서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말을 새기면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그러나 불의한 자는 자복(自服)하라."

〈국어문화운동본부 이사장·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위인백

인간의 존엄과 국가운

우리는 얼마 전 전직대통령의 투신자살이란 전대미문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휴일 하루를 뒤통수를 얻어맞은 심정으로 멍하니 보내다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생사를 초탈한 선의 경지에 이른 유서가 공개되자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이르러서는 참담하고 비통함에 책임을 통감하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작된 반정부적인 애도의 물결은 민주화를 갈망했던 지난날이 연상되는 민심을 읽을 수 있었다.

자기운명결정권에 의한 자살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 사연을 안타깝게만 생각해 오던 중 전직대통령의 선택은 그 의미가 사뭇 달라 다시 한 번 자살에 대한 국가(정부)의 책임과 인권문제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되돌아보면서 내우외환에 처해 있는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게 됨은 나만의 기우일까?

새삼스런 말이지만 인류의 역사를 인권과 법의 역사라고 하며, 또 생산과 분배의 역사이기에 이 사회는 성장과 효율을 앞세운 보수와 분배와 균등, 절차를 중시하는 진보가 병존하면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는 상극이 아니라 상생의 상호 보완관계이므로 서로 소통해야 한다.

더욱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은 크게 공권력에 의한 침해가 많기에 우리 헌법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규범으로 하여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국가의 행위를 규제하고 국가의 과업과 목적을 규정하며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시대에 747대선공약으로 정권을 잡아 법치를 내세운 공권력에 의해 생명이 유린당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법은 국민에게만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주권주의시대에 500만이 넘는 민심(어디까지나 현상적인 이 숫자에는 心喪중인 추도객은 없다)을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철저히 외면하고 경시하는 보수정권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냥 지켜만 봐야 할 것인가? 생명존중과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엠네스티는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인권변호사였으며, 지역타파를 위한 몸부림으로 아예 바보 노무현으로 불리어졌고, 개혁에 대한 수구기득권층의 저항을 타파하기 위해 그토록 거침없는 말로 외쳐왔던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러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결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그토록 처절하게 짓밟혀도 우리는 한낱 방관자였음을 자책하면서 법치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장 기본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하고 있는 정부는 이번에 분출된 전반적인 국정쇄신의 요구를 하루빨리 수용하길 바란다.

누가 뭐래도 민심이반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내우외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정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마저 외면한다면 개혁군주였던 정조대왕 서거 이후 조선이 몰락하면서 결국 외침을 불러들였던 역사의 교훈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엠네스티 광주·전남지부 이사장〉

기고

지남철

백 년의 전통, 천년의 미래

5월의 마지막 날, 양림동에 위치한 광주양림교회에서 장기기증재단과 함께 장기기증서약을 받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육신의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픔을 움켜쥐고서 살고 있다. 그 중에는 장기이식을 통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식받을 장기가 없어서 앓다가 그대로 죽어가고, 실명상태로 어둡게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장기기증재단이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장기기증의 홍보와 등록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스스로 그 힘든 일을 맡아서 뛰고 있다. 이러한 장기기증운동 정신에 동감하는 양림교회가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결정하고, 세상일로 뛰어든 것이다.

양림교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그동안 광주지역의 근대화를 선도했고, 교육과 의료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역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숭일학교, 수피아여고, 그리고 기독병원이 같이 설립되었다. 기독교정신이 피 흘린 희생으로 이어졌듯 양림교회는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또한 한국의 정신을 주도했던 양림교회의 교인으로는 한국 최초의 신학박사인 남궁혁목사, YMCA를 창설한 최흥종 목사, 그리고 김현승 시인 등이 있다.

지금, 양림교회는 '어비슨 기념관'을 신축 중이다. 어린이들, 어르신들, 그리고 동네 사람을 위한 친교교육관이다. 특히 이웃들을 위한 건전한 쉼터가 되고, 여러 복지사업도 이뤄진다. 기념관의 이름은 고종황제의 어의요, 세브란스 의전의 설립자인 Oliver Avison의 장남으로 북미 YMCA에서 한국에 파견한 국제적인 벼농사 전문가인 어비슨의 이름에서 따왔다.

1926년에 입국한 그는 농촌사업을 전개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향상과 사회적 단결, 그리고 정신적 소생을 도모하는 농촌계몽운동을 YMCA 국제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전개했다. 인근 7곳에 농민강습소를 개설하고 농민운동, 농촌야학, 우량종자보급, 과수와 축산을 지도했다. 광주 YMCA회관개설을 위한 대지 구입비 전액을 부담했고, 농업학교를 설립하여 농촌지도자를 양성했다. 일제탄압으로 1939년엔 강제출국을 당하기도 했다. 광복 후, 농업실습학교 자리에다 호남성경학교를 설립하여 지금의 호남신학대학교로 발전케 했으며, 한때 기독교 광주방송국의 터가 되기도 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지금이다. 역사가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인들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됐고,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소금처럼 녹았다. 그들의 흘린 피와 땀을 그대로 닮아야하는 양림교회는 그 농업학교의 일부였던 자리에 신축되는 친교교육관의 이름을 그분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뜻으로 '어비슨 기념관'으로 명명한 것이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양림교회로 이웃을 찾아가는 작은 자의 손길이 되기를 결심했고, 한국의 교육문제, 농촌문제에서도 외면치 않고, 연변의 조선족과 북한동포를 돕는 다양한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이어온 역사의 터전에서 한국의 장래와 겨레의 희망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겠다는 양림교회의 표어는 '백 년의 전통, 천년의 미래'였다.

〈조대 의대교수·장기기증재단이사장〉

접이식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시 탑재 가능 해야

요즘 자전거는 옛날의 크고 기다랗게 생긴 것 말고도 간단히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접이식도 많다. 길고 큰 자전거는 힘들다 해도 이 접이식 자전거는 버스나 택시에 실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해 줬으면 한다.

접이식 자전거는 길어봤자 가로세로 70센티미터 안팎이다. 두께도 역시 30센티도 안된다. 간단히 들어올리면 무게도 그다지 가볍지 않으니 버스에 들고 타기도 간단하고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자전거를 타다가 부득이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운전자분들이 손사래를 치며 안 된다고 떠민다.

요즘 TV나 신문 등 어디를 보아도 '저 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일반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과다로 지구가 더워지고 기후변화가 심해 승용차 운행도 줄이고 건강에 좋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는 게 전국적 추세 아닌가.

이런 상황에 맞게 자전거도 버스나 택시 어디던지 쉽게 실어주도록 규정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유진규·여천시 신덕동

과학적·체계적 관리로 명품 한우 키우자

우리에게 한우가 있다면 일본은 화우라는 게 있다. 일본에서는 이 화우를 신주단지 모시듯 지키며 세계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독특한 맛을 내기 위해 아주 과학적이고 치밀한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3대 화우 브랜드는 요네자와규라고 한다. 1년간 2천600마리 가량을 생산하는 요네자와규는 규모는 적지만 출하 물량의 약 80%가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다. 아울러 도축 되는 모든 마릿수에 대해 DNA검사를 해서 소비자에게 안전은 물론 신뢰까지 주고 있다.

요네자와규는 소의 골격과 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전기, 육질을 높이기 위한 중기, 지방을 늘리기 위한 후기로 나눠 사육 체계를 구축하고 화우를 기르는 모든 농가에 전달해 반드시 그걸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명품 한우 브랜드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본의 이 같은 과학적이고 더 체계적인 관리기법을 적용해 한우가 더 사랑받는 고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천강희·광주시 북구 각화동

사설

4대강 살리기 밀어붙이기식 추진 안된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이 8일 확정됐다. 지난 2년간 전국을 들끓게 했던 국가적 사업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본 사업비 2조6천461억원을 포함해 총 5개과제에 오는 2012년까지 22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물부족에 대비하고 홍수에 강한 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기대 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점이다. 무려 2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을 만 5개월 만에 확정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간 지역별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됐지만 확정된 마스터플랜은 3조원이 더 늘어난 예산계획 뿐 당초 정부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1년여간의 계획 수립과 2년여의 공사로 완성한다는 발상은 성급한 것이다.

또한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도 떨쳐버릴 수 없다. 4대강에 무려 16곳이나 설치되는 보들은 나중에 운하의 갑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정부는 '대운하와는 무관하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업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만 5개월만에 종합계획을 '뚝딱' 확정한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영산강과 한강, 금강, 낙동강은 말 그대로 국토의 젖줄이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성과에 따라 극심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좀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졸속추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의 재앙을 예방하는 길이다.

경찰, 대형 강력사건 해결의지 있나 없나

최근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살인, 떼강도 등 굵직굵직한 강력사건이 장기간 미궁에 빠지면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사건 대부분이 민생침해사범단속기간에 발생해 민생치안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되짚어 볼 일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민생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1천777건을 단속해 범인 검거율 80.1%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검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0.1%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은 백번 잘한 일이다.

문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대형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이들 사건 대부분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0일 밤 발생한 광주시 북구 용봉동 여의사 노상 살인사건을 비롯해 지난 4월15일 남구 구동의 보석공방 3인조 강도사건, 주민센터 6곳이 연쇄적으로 털린 절도사건은 아직껏 범인 윤곽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3월 발생한 북구 중흥동 50대 남성 피살사건도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CCTV와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살인·강도 등 흉악범죄가 특별단속 기간에 발생한 것도 모자라 몇 개월이 지나도록 범인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니 그럴 만하다. 결국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조직의 존재 이유는 한마디로 민생치안 안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신속한 수사착수 등 기본에 충실하도록 일선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기강 확립을 위한 경찰의 자성과 개혁도 시급한 과제다. 경찰은 대형 강력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시국 선언

고려대 교수들이 8일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이날 고려대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대적인 국정쇄신 단행을 요구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3일 서울대에서 출발했다. 서울대 교수 124명은 이명박 정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인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9일 광주·전남 지역 대학 교수 500여 명도 시국선언에 동참할 예정이다.

고려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려대 출신인 만큼 해당 대학 교수들이 동문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팔이 안으로 굽게 마련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정서상 고려대 교수들이 동문인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론이 악화돼 있다는 반증이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조선시대 유생들의 농성(籠城)과 비유된다. 가장 강력한 왕권사회인 조선시대에도 왕의 잘못된 정책이나 판단에 대해 당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최고 엘리트 집단인 유생(儒生)들이 시정을 요구하며 집단적인 의사를 표출했던 게 농성이다.

따라서 최상위 지식층인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기층 민중들 사이에서 형성된 일반적인 여론과 함께 전문분야의 식견을 갖춘 교수들까지도 시국이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생들이 농성에 들어가면 왕은 사리를 따져 상당 부분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상식이었다. 정의감에 가득 찬 젊은 유생들의 주장은 대체로 명분을 지녔고 왕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국정은 제궤도를 찾을 수 있었던 교훈을 익히 알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수들은 지성의 최후보루다. 교수들이 고민 끝에 시국의 전면에 나선만큼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